

# 광주FC 허을 “나는 신형 멀티플레이어”



광주FC의 허을이 지난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28분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K리그·ACLE 전·후방 오가며 ‘소금’ 역할 “한층 더 성장한 시즌…막판 스피트하겠다”

광주FC의 ‘신형 멀티플레이어’ 허을이 두 마리 토끼 사냥 전면에 선다. 허을은 올 시즌 전방과 후방을 오가면서 팀의 빈틈을 채운 ‘소금’ 역할을 하고 있다. 193cm 장신 공격수로 주목을 받아온 그는 팀의 수비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시즌 중반 센터백으로 변신했다. 허을의 가능성에 주목한 이정호 감독이 이끈 변화로 허을은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열린 6월 30일 센터백 자리에서 통산 100경기 출장을 이뤘다.

광주 수비에 높이를 더해줬던 허을은 이번에는 화력 싸움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가와사키 프론타레(일본)와의 ACLE 그룹 스테이지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허을은 가브리엘과 함께 공격 전면에 섰다. 스피트라운드 일정에 앞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6일 K리그1 33라운드 서울전에서도 허을은 공격수로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허을은 후반 28분 변준수의 패스를 넘겨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서울 골대를 갈랐다. 부산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지만, 비디오판독 끝에 골이 인정되면서 허을은 홈팬들 앞에

서 골 세리머니를 펼칠 수 있었다. 광주는 허을의 골을 시작으로 이견희, 아사나의 골을 더해 리그의 5호골로 추격한 서울을 3-1로 꺾고 7위 자리를 지켰다. 경기가 끝난 뒤 “광주FC의 신형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면 될 것 같다”며 웃은 허을은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팬분들이 ‘골’ 해주셔서 심장이 뛰었다. 골이 확정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팬분들에게 달려갔던 것 같다”고 골 소감을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허을의 골에 대해 “센터백을 본 이후 포워드로 올라왔는데 많은 옵션이 생겼다. 센터백을 본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 허을도 “경험”이 성장의 자산이 됐다는 평가다. 허을은 “센터백으로 전향하고 나서 포워드를 놓

았다면 이런 결과를 못 만들었을 것 같다. 센터백 자리에서도 포워드 움직임을 계속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공격보다 수비가 진짜 힘들다. 2배는 힘든 것 같다. 나를 괴롭혔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나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경기장에서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게 도움이 됐다. 센터백은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매력 있고, 공격 볼 때는 골인 것 같다. 골 넣을 때 최고다”고 웃었다. 허을의 골로 시작된 이번 경기에서 그를 대신해 교체 멤버로 들어간 이견희도 경기 투입 3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광주는 서울을 상대로 올 시즌 3전 전승을 만들 수 있었다. 허을은 “간헐성이 밖에서 보면 자극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다”고 경쟁의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했다.

광주의 ACLE 도전이 이어지고 있고, 스피트라운드에서는 ‘생존싸움’도 벌어야 한다. 아직 많은 일정이 남아있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올 시즌을 돌아보면 ‘희로애락’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허을은 “올 시즌을 생각하면 희로애락인 것 같다. 좌절도 있었고 좋은 결과도 있었고, 좋은 과정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지만 2023 허을보다 한층 더 성장된 시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시 휴식의 시간을 보내게 된 광주, 허을은 건강 한 몸으로 막판 스피트를 펼칠겠다는 각오다. 허을은 “가와사키전 때 발목이 안 좋아서 치료에 전념하고, 바로 스피트 경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운동하고 잘 쉬고 잘 복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박찬호 2년 연속 수비상 탈까

## KBO, 포지션별 후보 발표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박찬호가 2년 연속 수비상 수상 노린다. KBO가 포지션별 최고 수비수를 가리는 ‘2024 KBO 수비상’ 후보를 발표했다. 수비상은 수비의 가치를 인정하고 리그 전반의 수비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시즌 신설됐으며, 현재 10명의 선수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찬호는 LG 오지환과 초대 유격수 부문 공동 수상자가 됐다. 수비상은 정규시즌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능력을 보여준 포지션별 1명씩 총 9명에게 주어진다. 투수는 144경기 중 3분의 1이닝인 48이닝 이상 투구한 선수가 후보가 됐다. 선발투수 외에 불펜 투수도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투수 후보 기준이 마련됐다. 98명의 투수가 이 기준을 충족했으며 KIA에서는 양현종, 제임스 네일, 황동하, 윤영철, 장현식,

김도현, 전상현, 곽도규, 정해영이 후보가 됐다. 포수는 전체 경기의 2분의 1인 72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를 대상으로 했으며, KIA 김태균과 한준수 등 1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내야수 및 외야수는 144경기에서 5이닝을 곱한 720이닝 이상 해당 포지션을 지킨 선수가 후보로 선정됐다. 외야수는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부문으로 구분해 후보가 결정됐다. 두 개 이상의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출장한 선수는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로 선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1루수 7명, 2루수 7명, 3루수 10명, 유격수 10명, 좌익수 5명, 중견수 9명, 우익수 6명이 부문별 후보가 됐다. KIA에서는 이우성(1루수), 김선빈(2루수),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 소크라테스(좌익수), 최원준(중견수)이 명단에 포함됐다. 수상자는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결정된다.

각 구단 감독, 코치 9명, 단장 1명 등 구단당 11명씩 총 110명이 투표인단으로 참여한다. 자신이 속한 구단 선수에게는 표를 행사할 수 없으며,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비 기록 점수는 KBO 공식 기록업체인 스포츠 투아이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수비 지표 활용해 포지션별 2~3개 수비 항목의 점수를 산출한다. 수비율과 레인지팩터가 반영된 공식기록 점수를 바탕으로 ▲투수는 번트 타구 처리 및 견제 ▲포수는 포수 무관 도루를 제외한 도루저지율과 블로킹을 ▲내야수·외야수는 기록되지 않은 호수비와 실책 등을 보정한 조정 KUZR(KBO Ultimate Zone Rating) 점수가 반영된다. KBO 공식기록원이 시즌 중 따로 축적한 데이터가 포수 무관 도루 및 KUZR 보정 관련 집계에 활용된다. 수비상 주인공은 11월 말 KBO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G 최원태



KT 벤자민

# PO행 ‘100% 확률’ 잡아라

## ‘1승1패’ LG-KT 오늘 준플레이오프 3차전…최원태·벤자민 선발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팽팽하게 맞선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3차전 승리팀은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보충수표를 받았다. 7일 KBO 사무국은 준PO 3차전에 kt 벤자민, LG 최원태가 각각 선발로 출전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준PO 2차전이 끝난 뒤 양 팀 사령탑이 예고한 그대로다. 올해로 KBO리그 3년 차인 벤자민은 가장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2022년 2.70이던 평균자책점은 지난해 3.54로 올랐고, 올해는 평균자책점이 4.63까지 올라갔다. 11승 8패에 149.2이닝 소화로 외국인 투수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포스트시즌에 들어와서는 눈부신 역투로 이름을 알렸다.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인 지난달 28일 키움전만 해도 3.1이닝 6실점으로 무너져 KT마운드의 불안 요소 취급까지 받았던 벤자민은 3일 두산 베어스와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는 7이닝 3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준PO 진출에 앞장섰다.

등판 순서만 따지면,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선발로 등판했던 윌리엄 쿠에바스가 먼저다. 하지만 KT 벤치는 일찌감치 벤자민을 3차전 선발로 내정하고 준PO 시리즈를 준비했다. 벤자민은 LG를 상대로 통산 10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1.66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쿠에바스는 LG전 9경기 4패 평균자책점 9.00이다. 이에 맞서는 LG는 오른손 투수 최원태가 선발로 출전한다. 최원태는 올해 정규시즌 9승 7패 평균자책점 4.26을 남겼다. 안정적으로 던지는 날도 있었지만, 잔 부상 때문에 기복이 심했다. 이제까지 최원태는 가을야구에서 약점을 노출했다. 포스트시즌 통산 성적은 15경기 1패 1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11.17이다. 지난해 시즌 도중 키움 히어로즈에서 LG로 트레이드되면서 치렀던 한국시리즈는 그에게 악몽으로 남았다. 선발로 1경기, 불펜으로 1경기 등판했던 최원태는 2경기 도합 1.1이닝만 소화하고 5점을 내줘 평균자책점 33.75를 남겼다. 올해 가을야구에서 선발 중책을 맡은 최원태는 명예 회복을 바란다. 최원태는 정규시즌에서 KT를 만나 선발 투수로 제 몫을 했다. 3번 선발로 등판해 2승을 챙겼고, 18이닝을 소화해 평균자책점 3.50으로 선전했다. LG는 최원태가 ‘가을 올림왕’을 내려놓고 정규시즌 KT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재현하길 기대한다. /연합뉴스

# ‘비난 한 몸에’ 홍명보 감독 운명은?

## 손흥민 결장 속 월드컵 예선 3차전 위해 요르단행 감독 선임 논란 속 패배 팬 경질 여론 높아질 듯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축구대표팀이 10월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를 치르러 요르단으로 떠났다. 홍명보호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 7일 이른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2연전의 첫 경기를 원정에서 치르는 만큼, 일단 K리그,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인천공항으로 집결했다. 오세훈(마치다)을 비롯해 이동경(김천), 이명재, 주민규, 조현우(이상 울산), 김주성(서울), 황문기(강원), 김준홍(전북)까지 8명의 선수가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대표팀 관계자들과 장도에

올랐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햄스트링 부상 탓에 이번 대표팀에서 하차한 가운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맨체스터 시티) 등 해외파 선수들은 곧바로 암만에서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은 9월 팔레스타인(홈·0-0), 오만(원정·3-1)을 상대로 각각 치른 3차 예선 1, 2차전에서 1승 1무의 성적을 내 B조 2위(승점 4·골득실 +2·3득점)에 올라왔다. 다득점에서 앞서 1위(승점 4·골득실 +2·4득점)인 요르단은 이라크와 더불어 한국과 선두권 다툼을 벌일 걸로 예상되는 강팀이다.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우승국이

도 하다. 요르단은 이 대회에서 한국과 두 차례 만났는데, 조별리그 맞대결에서 2-2로 비기고 준결승전에선 2-0으로 승리했다. 태극전사들은 이번만큼은 요르단을 잡아내 B조 선두 자리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자존심까지 회복하겠다는 버리고 있다. 축구 팬들의 비난 여론을 한 몸에 받는 홍 감독에게도 중요한 일전이다. 충분히 응원받지 못한 채 사령탑에 오른 홍 감독에게는 ‘히든 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지면 경질 여론이 높아질 거로 보인다. 매 경기를 ‘결승전’처럼 치러야 하는 홍 감독이다. 게다가 ‘최고의 무기’인 손흥민 없이 승리를 지휘해야 한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10일 오후 11시 암만국제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표팀은 요르단전을 마치고는 축구협회와 마련한 전세기편으로 곧바로 귀국,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